

한글 개역성경의 번역에 관한 두 가지 수정 제안

장해경*

1. ‘믿음으로 말미암아’에 관한 수정 제안

신약성경의 기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용어를 전문적으로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오는 구원을 해설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울은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신칭의(以信稱義, justification by faith)’ 교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거기서 ‘의’(명사 δικαιοσύνη) 또는 ‘의롭다 하다’/‘의롭다 함을 얻다’(동사 δικαιοῦν/δικαιοῦσθαι)라는 중심 개념은 ‘믿음(πίστις)’이란 용어와 다음의 세 가지 어구 중 한 형태로 연결된다: 1) ἐκ πίστεως (9회)¹⁾ 또는 2)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6회)²⁾ 또는 3) [τῇ] πίστει (1회)³⁾. 이 세 부사구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 —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 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과 어떤 관련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위의 세 부사구들은 해당 문맥들 가운데서 내용상 별다른 차이 없이 동의어처럼 쓰이고 있다. 우선 ἐκ πίστεως와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가 상호교대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은 로마서 3:20과 갈라디아서 2:16의 진술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금방 드러난다.⁴⁾ 이 두 부사구는 또한 로마서 5:1-2, 갈라디아서 2:16상반, 그리고 로마서 3:28에서 [τῇ/] πίστει와 동의어로 나타난다.⁵⁾ 바울은 이외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1) 롬 1:17; 3:30상; 5:1; 9:30하; 10:6; 갈 2:16하; 3:8, 11, 24(이외에도 롬 3:26; 4:16과 갈 3:7, 9의 ὁ/οἱ ἐκ πίστεως와 롬 9:32; 갈 3:22; 5:5의 ἐκ πίστεως를 참조하라).

2) 롬 3:22, 25, 30하; 4:13; 갈 2:16상; 빌 3:9하(이외에도 롬 3:31; 갈 3:14, 26; 엡 2:8; 3:12, 17; 골 2:12; 딤후 3:15의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를 참조하라).

3) 롬 3:28(이외에도 빌 3:9하의 ἐπὶ τῇ πίστει와 롬 4:20; 5:2; 11:20의 τῇ πίστει를 참조하라).

4) 롬 3:20(διότι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οὐ δικαιοθήσεται πᾶσα σὰρξ ἐνώπιον αὐτοῦ, διὰ γὰρ νόμου ἐπίγνωσις ἁμαρτίας)과 갈 2:16(εἰδότες δὲ ὅτι οὐ δικαιοῦται ἄνθρωπος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ἐὰν μὴ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καὶ ἡμεῖς εἰς Χριστὸν Ἰησοῦν ἐπιστεύσαμεν, ἵνα δικαιωθῶμεν ἐκ πίστεως Χριστοῦ καὶ οὐκ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ὅτι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οὐ δικαιοθήσεται πᾶσα σὰρξ)을 서로 비교해 보라.

5) 롬 5:1-2(Δικαιωθέντες οὖν ἐκ πίστεως εἰρήνην ἔχομεν πρὸς τὸν θεὸν διὰ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δι’ οὗ καὶ τὴν προσαγωγὴν ἐσχήκαμεν τῇ πίστει εἰς τὴν χάριν ταύτην ἐν ἣ ἑστήκαμεν καὶ καυχώμεθα ἐπ’ ἐλπίδι τῆς δόξης τοῦ θεοῦ)와 갈 2:16a(εἰδότες δὲ ὅτι οὐ δικαι-

도 ἡ ἐκ πίστεως δικαιοσύνη (롬 9:30; 10:6), ἡ διὰ πίστεως δικαιοσύνη (빌 3:9), 그리고 ἡ δικαιοσύνη [τῆς] πίστεως (롬 4:11, 13) 등의 표현들을 사실상 아무런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종류의 ‘믿음’-부사구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번역할 것인가? 언어적-문법적 차원에서만 검토하면, 이 어구들은 모두 경우에 따라서 ‘원인적(causal)’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 ‘도구적(instrumental)’ 내지는 ‘방법적(modal)’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다.⁶⁾ 이를테면 ἐκ πίστεως는 ‘원인적’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고(because of faith, on the basis of faith), ‘방법적’/‘도구적’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다(by means of faith, through faith).⁷⁾ 마찬가지로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도 — 전치사 διὰ가 소유격과 결합할 때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⁸⁾ — ‘원인적’ 의미와 ‘방법적’/‘도구적’ 의미를 동시에 내포할 수 있다. 단순 여격인 [τη/] πίστει는 문법적으로 세 가지 번역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원인적’으로(because of faith, on the basis of faith) 또는 ‘도구적’으로(through/by faith), 혹은 ‘방법적’으로(in the way of faith) 해석할 수가 있다.⁹⁾

만일 우리가 위의 세 ‘믿음’-부사구들을 사람이 구원에 참여하는 ‘원인’/‘조건’을 가리키는 것으로(causal/conditional) 해석한다면, 그것들은 “믿음 때문에”(because of faith)/“믿음을 조건으로”(on condition of faith)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어구들을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도구’/‘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instrumental/modal) 해석한다면, 그것들은 “믿음을 통하여”(through faith)/“믿음의 방식으로”(in the way of faith) 등으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다수 개신교회에서 공인받아 사용되어온 한글 개역성경(1961년, 1998년의 『개역개정』 포함)은 바울의 ‘이신칭의’ 진술 가운데 등장하는 위의 세 ‘믿음’-부사구들(ἐκ πίστεως,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τη/] πίστει)에 대하여 주로

οὕτως ἄνθρωπος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ἐὰν μὴ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및 롬 3:28(λογιζόμεθα γὰρ δικαιοσύνην πιστεῖν ἄνθρωπον χωρὶς ἔργων νόμου)을 비교해 보라.

6) 이 점에 관해서는 BDR, § 196, 198, 212, 223; M. Zerwick, *Biblical Greek*, J. Smith, trans. and adaptation, SPIB 114 (Rome 1963=²1982), § 58, 60, 112-114, 134-135를 참조하라.

7) BAGD, 295-298, s.v. ἐκ ③.④; G. Lüdemann, Art. ἐκ (ἐξ) (*EWNT* I), 978.

8) BAGD, 223-225, s.v. διὰ A. ①-⑤; A. Oepke, Art. διὰν (*ThWNT* II), 64-68; A. J. Heß, Art. διὰ (*EWNT* I), 712-713을 보라.

9)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158-170, 특히 161-168; Blass and Debrunner, *Grammatik*, § 187-202; Zerwick, *Biblical Greek*, § 51-65를 참조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번역을 취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구절들을 살펴보면,¹⁰⁾ 개역성경(1961년)은 ἐκ πίστεως와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를 구별하지 않은 채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11회 번역하였고(롬 1:17; 3:22, 25, 30상, 30하; 4:13; 10:6; 갈 2:16상; 3:8, 24; 빌 3:9하)¹¹⁾, ἐκ πίστεως를 2회(롬 5:1; 갈 3:11), 그리고 1회 등장하는 단순여격 πίστει(롬 3:28)를 “믿음으로”라고 번역하였다. 또한 ἐκ πίστεως를 단 한 번 예외적으로 “믿음으로서”라고 번역하였다(갈 2:16 하).

그런데 이 부사구들의 번역에 있어서는 2005년에 4판이 출간된 개역개정 판조차도 개역성경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두 역본 사이에서 유일하게 발견되는 차이점은 개역성경이 갈라디아서 2:16하반의 ἐκ πίστεως를 “믿음으로서”라고 번역하였던 것을 『개역개정』이 어법에 맞추어 “믿음으로써”로 바꾼 것뿐이다. 한글 『개역개정』의 해당 구절 번역들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1. 칭의 문맥 내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말미암다”

- 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 롬 3: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 롬 3:30(2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 롬 4: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 롬 10:6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 갈 2:16상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

10) 위의 각주 1-3을 보라.

11) 개역성경은 롬 1:17; 3:30상; 10:6; 갈 3:8, 24에서 ἐκ πίστεως를, 롬 3:22, 25, 30하; 4:13; 갈 2:16상; 빌 3:9하에서는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번역하였다.

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갈 3:8 또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 3: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빌 3:9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1.2. 칭의 문맥 내에서의 “믿음으로/믿음으로써”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갈 3: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갈 2:16하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써(『개역』: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빌 3:9하 …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필자는 위의 1)항에서 인용한 바울의 칭의론적 ‘믿음’-부사구들(ἐκ πίστεως,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πίστει)에 대한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의 통상적 번역인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각 문맥에 따라서 “믿음을 통하여” 또는 “믿음으로[써]”로 개정할 것을 진지하게 제안한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번역은 우리말 독자들로 하여금 바울의 ‘칭의’에 있어서 ‘믿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하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바울의 세 가지 ‘믿음’-부사구가 칭의의 ‘원인’/‘조건’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칭의의 ‘도구’/‘방법’을 가리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해당 구문의 문법적 분석만을 통해서 얻어낼 수 없다. 문법적으로는 세 구문이 모두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각 경우마다 다르게 번역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울의 저작 (*Corpus Paulinum*) 전체를 신학적으로 조망하며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근거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다.¹²⁾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이 근거를 ‘누가

세우는가? —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이다. 우리는 심지어 ‘믿음’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남게 되는 결정적인 질문은 과연 이 조건을 ‘누가’ 채우고 만족시키는가? —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다.

이 큰 주제에 관하여 필자는 여기서 상술하지 않겠다. 다만 사람들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즉 구원을 얻는) 믿음’이 ‘어떻게’ 처음 생기게 되는가? 라는 문제에 관하여 가장 시사하는 바가 많은 바울서신의 본문들을 주석적으로 고찰한 이전의 연구를¹³⁾ 토대로 다음의 결론을 제시하겠다. 즉, 바울의 칭의론적 문맥에서 사용된 세 가지 ‘믿음’-부사구는 모두 근본적으로 ‘원인’/‘조건’의 의미(*propter fidem*)가 아니라 ‘도구’/‘방법’의 의미(*per fidem*)로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 부사구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원인’/‘조건’(“왜냐하면 그가 믿기 때문에”, “만일 그가 믿는다면”, “그가 믿는 한에 있어서”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도구’/‘방식’(“믿음을 통하여” 또는 “믿음으로써”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사구들을 거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함으로써 ‘믿음’을 마치 칭의/구원의 ‘이유/원인’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오도한다. 사전적으로 ‘말미암아’의 어간동사인 ‘말미암다’는 ‘...에’ 또는 ‘...으로’라는 격조사와 결합하면 오로지 “어떤 현상이나 사물 따위가 원인이나 이유가 되다”는 의미만을 나타낼 뿐이다.¹⁴⁾ 아마도 한글 개역성경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그 성경의 번역 당시에 대본으로 참조하였던 중국어 성경의 영향이 아닌가 추정된다.¹⁵⁾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번역의 대안이 필요하다.

우선, “믿음에 의하여”도 합당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의하여’의 어간동사

12) 예를 들면, 바울도 빌 3:9하반에서 ‘믿음에 근거한 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ἢ διὰ πίστεως Χριστοῦ, ἢ ἐκ θεοῦ δικαιοσύνη ἐπὶ τῇ πίστει. 또한 행 3:16상반도 참조하라: ἐπὶ τῇ πίστει τοῦ ὀνό-ματος αὐτοῦ [=Χριστοῦ] (그의 이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13) 장해경, “구원을 얻는 믿음의 기원(The Genesis of Saving Faith)”, 『신약신학 저널』 3 (2000), 278-302. 이 줄고에서 필자가 믿음의 ‘발생/기원’에 관하여 고찰한 바울의 본문들은 롬 1:16-17; 3:21-28; 10:5-8; 15:17-19; 고전 2:4-16; 고후 2:14-7:4 (특히 3:2-3; 4:3-6); 갈 3:1-25; 엡 2:8-9; 살전 1:5-6 등이다.

14) 국립국어연구원(편), 『표준국어대사전』 상 (서울: 두산동아, 1999), 2040, s.v. ‘말미암다’, ①.

15) 중국어 성경들은 바울의 ‘믿음’-부사구들을 대부분 “因信”(‘믿음으로 말미암다’)으로 번역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갈 2:16a-b는 Chinese Union Version에서 “既知道人稱義, 不是因行律法, 乃是因信耶穌基督, 連我們也信了基督耶穌, 使我們因信基督稱義, 不因行律法稱義”로, Chinese New Version에서도 “既然知道人稱義不是靠行律法, 而是因信耶穌基督, 我們也就信了基督耶穌, 使我們因信基督稱義, 不是靠行律法”으로 번역되었다.

인 ‘의(依)하다’는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 또는 무엇으로 말미암다”라는 뜻을 나타내는데¹⁶⁾ 그 어느 쪽의 의미를 취해도 적합하지가 않다.

차라리 조금은 애매한 “믿음으로”가 그보다 더 나아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으로”라는 격조사의 의미를 모두 열한 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논하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의 수단·도구” 또는 “어떤 일의 방법이나 방식” 또는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격조사”의 세 가지 의미로 좁혀진다.¹⁷⁾

“믿음으로”보다 좀 더 나은 번역은 “믿음으로써”이다. “...으로써”가 더 특수하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이기 때문이다.¹⁸⁾ 그러나 가장 좋은 번역은 “믿음을 통하여”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사전에 따르면, “통하여”의 어간동사인 “통하다”는 크게 여덟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을 통하다’라는 표현에 적용 가능한 것은 “어떤 물체를 매개로 하거나 중개하게 하다”라는 뜻밖에 없다.¹⁹⁾

필자가 제안하는 “믿음을 통하여” 또는 “믿음으로써”라는 번역은 수많은 영어 및 독일어 성경역본들이 바울의 ‘칭의론’ 문맥에서 거의 규범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through faith”/“by faith” 및 “durch Glauben”/“aus Glauben”이라는 번역과 상통한다. 이 사실은 그 번역이 원문의 뜻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오랜 세월의 신학적 연구가 검증하였음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ἐκ πίστεως나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가 하나님이 주어진 능동태 동사 ‘의롭다 하시다(δικαιοῦν)’ 또는 사람이 주어진 수동태 동사 ‘의롭다 하심을 얻다/받다(δικαιοῦσθαι)’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대개 “믿음을 통하여”라고, 그리고 가끔 더 나은 어감을 위해 “믿음으로[써]”라고 번역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그 전치사 구들이 가끔 ‘의(δικαιοσύνη)’라는 명사와 결합될 때도 “믿음에 의한 의” 또는 “믿음에서 나온 의”보다는 “믿음을 통한 의”라고 번역할 것을 권유한다.

더 나아가 ἐκ πίστεως나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가 ‘칭의’의 문맥 외에서 등장하는 다음의 바울서신 구절들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번역한 『개역개정』 성경을 “믿음을 통하여” 또는 “믿음으로[써]”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1.3. 칭의 문맥 외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16) 『표준국어대사전』 중, 4879-4880, s.v. ‘의³⁾, ‘의하다’.

17) Ibid., 4839, s.v. ‘으로’, ⑤-⑦.

18) Ibid., 4839, s.v. ‘으로써’, ②.

19) 『표준국어대사전』 상, 6419-6420, s.v. ‘통¹³⁾, ‘통하다’, 7-②.

- 롬 3:31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 갈 3: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 갈 3: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 갈 3: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 엡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 엡 3:12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 엡 3: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 골 2: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 살전 3:7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 딤후 3: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2. ‘오직’에 관한 수정 제안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원문에서 선행하는 부정적 의미의 부사(οὐ, οὐκ, οὐχ, οὐχί 등)나 접속사(οὐδέ)나 불변화사(μή, μηδέ)나 문장(μη γένοιτο)과 연결된 상관 접속사 ἀλλά나 접두사 δέ를 거의 빠짐없이 “오직”이라고 번역한다. 영어로 말하자면, “not/no ... but ...” 형식의 구문 안에서 ‘but’에 해당하는 단어를 “오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다.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한 구절이 무수히 많은데, 『개역개정』은 그 오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같은 구절의 예를 들자면, 로마서 내에서만 19곳이 발견된다:

- 롬 1:17하 ...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 롬 2: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 롬 2:29상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 롬 3:4상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 롬 3:27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 롬 4: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 롬 6: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 롬 7:13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 롬 8: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 롬 9: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 롬 9: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 롬 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 롬 9: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 롬 11:7 그런즉 어떠하나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롬 13:14 (13절의 부정적 명령과 연결되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나 ‘오직’은 부사로서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
만”이란 의미를 나타낸다.²⁰⁾ 그러므로 위와 같은 본문들에서 한글 『개역개정』
성경이 “오직”이라고 번역한 곳마다 “오직”이란 단어를 생략해버리고 선행
하는 부정의 진술을 부드럽게 연결시키든지, 전후 문맥에 어울릴 경우에는
“오히려” 또는 “그러나”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게 보인다.

(투고 일자: 2012. 10. 11. 심사 일자: 2012. 11. 9. 게재 확정 일자: 2012. 12. 26.)

20) 『표준국어대사전』 중, 4494, s.v. ‘오직’.